

- 난잔에서 남산까지, 그리고 계속 -

마르쿠스 가보르 / 헝가리

난잔과 남산의 한자표기는 같다. 똑같이 '南山'이라 쓰며 '남쪽의 산'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난잔은 일본 나고야에 있고, 남산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

내 인생에서 난잔 대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30년 전 헝가리 학생이었던 나는 그 대학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와 일본어를 접하기 시작했는데, 공산권의 헝가리인들은 동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자본주의 국가와는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었다. 1982년, 가난한 학생 신분으로 동아시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거의 빈손으로 당시의 부국이었던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당시 동유럽 국에서는 러시아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 일본어도 모르는 상태였다.

일본에서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다행히 Verda Stelo 기업의 Ryokusei Kigyo K. K. 덕분에 장학금으로 난잔대학에서의 학업이 가능해졌고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일본까지의 항공료는 나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항공료가 너무 비싸서 부다페스트에서 나훗카(시베리아철도 종점)까지는 기차로, 나훗카에서 요코하마까지는 배를 이용하기로 하고 가장 값이 싸고 불편한 6등석 표를 구매했다. 그러나 나훗카 항구에서 선장은 몇 안 되는 승객 때문에 모든 객실을 개방하고, 불을 밝히고, 난방이며 청소를 할 수 없으니 승객 모두 지불 금액과 관계없이 일등석 방을 사용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싼 표를 구매했음에도 제일 좋은 객실에서 요코하마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

30년 전 일본 유학 초기에 나의 유일한 동아시아 사회와의 접촉은 일본 에스페란토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놀라운만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유럽과 동아시아 학문, 산업, 상업 그리고 사회 기구들과 국제적인 교섭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학과 다양한 사회단체 모임과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교수와 학장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 소유주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그 성공 사례들을 여러 언어로 저술하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유명한 교수들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으로 초청하여 한국, 일본, 중국 문화를 헝가리에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때 초청된 분들이 서길수(한국), Shen Chenru(중국), Mizuno Yoshiaki(일본) 교수들이었다. 또한, Akashi Yoji(비에스페란티스토, 난잔대학 학장) 씨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학술회의에 참가 후 동유럽에 있는 나를 방문하고 싶다고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들 모두가 에스페란티스토였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가 가능했었고, 그렇게 성사된 방문은 나에게는 큰 영광이었다. 특히 서길수 교수는 헝가리의 모든 에스페란티스토 경제학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강의를 해주신 분이다. 그분은 동유럽의 정치변화 직후, 공산주의의 패배 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였을 때 방문하여 헝가리가 어떻게 현대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깨우쳐 주셨다.

난잔대학에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나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제목은 '일본의 전쟁 후 경제발전의 해석'이었다. 이후 나는 가장 큰 헝가리 기업체의 회장이 되었고, 헝가리 국영 석유회사에서 전략 매니저로도 일을 했다. 동유럽의 정치변화 후에는 헝가리 국회의 심사관 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정부 요인들을 감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나는 그들이 법에 따라 처신하는지, 그리고 국가 예산을 법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외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컴퓨터 관련 정기간행물의 편집위원이 되어 동아시아 부분을 담당했다. 석유회사와 국회 심사관 실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들이 더 폭넓고 유용한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규칙적으로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헝가리 국무부와 재무부 기관지에 실었다. 그렇게 해서 독자들과 정부기관 임원들이 20세기 말에 에스페란토가 이미 국제적인 학문, 전문분야, 문화 그리고 경제 관계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최근 몇 해 동안 나는 서울에 있는 남산 주변에서 몇 주 혹은 몇 달을 보내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 에스페란토문화원을 방문하곤 했다. 이종기 문화원장은 두 곳의 대학에서 에스페란토를 강의하며, 문화원에서도 규칙적으로 수준별 학습 모임을 만들어 에스페란토를 지도하는 한편 문화와 종교 관련 행사도 주관하는데, 나는 그 행사에도 가끔 초대되어 강의를 했다. 그러면서 중국, 일본의 대학이나 사회과학 단체와 함께하는 보다 더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 동시에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세계대회 임원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나고야의 난잔대학교 교수들과도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나의 초청을 받아드려 부다페스트에 있는 검소한 내 집에서 묵으면서 한국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곤 했는데 이는 나와 헝가리 에스페란티스토들 모두에게 영광이며 중요한 일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유명한 화가 허성 씨는 내가 사는 도시에서 성공적인 작품전시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헝가리 에스페란토협회에 귀중한 미술작품도 선물했었다. 부다페스트 중앙클럽의 회원들은 한국의 이현미(Esther) 씨가 딸들과 함께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여 한국의 대안교육 시스템을 열정적으로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또한, 신은숙 씨의 아들 신영(Leo) 군은 니레지하저(헝가리 동쪽 도시)에서 개최된 모임에 참석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했다. 안종수(Kara An) 씨와 그의 아내 고경자(Roza) 씨의 방문은 부다페스트 에스페란티스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했다. 그들은 무정부 운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무정부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나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민옥경(Dumina) 씨의 방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맛있는 한국 음식의 요리법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잘사는 한국에도 나처럼 검소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차도 두

번씩이나 우려내는 것은 그녀와 우리 가정의 공통된 습관이었다. 그녀는 정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헝가리 음식이 입맛에 맞을 때에는 요리법을 열심히 적기도 했다. 또한, 부다페스트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매우 열심히 관람하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 그녀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방문을 마칠 즈음이면 유럽의 예술, 문화에 대해 유럽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나의 동아시아 방문과 동아시아인들의 우리나라 방문 그리고 나의 폭넓은 국제적인 협력 덕분에 나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저렴한 열차표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되었고, 4성급이나 5성급 정도의 호텔도 마음대로 예약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나는 이미 검소한 삶에 익숙해졌고, 몸에 밴 그런 삶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

한국, 일본, 중국을 여행하면서 3개국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때로는 4개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가장 중요한 결론은 나의 일기장에 경제, 재무 감사, 언어, 종교, 문화 등 전문분야에 대한 강의 준비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 성공은 난잔 대학에서의 학업과 한국과 중국의 주요 대학, 학술원, 문화단체와의 교류 그리고 국제어 에스페란토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2주 전, 도쿄에서 개최된 제100차 일본 에스페란토대회에서 강의할 때 '일본 에스페란토운동은 매우 활동적이고 유익했다, 일본 에스페란티스토 단체와의 협력으로 나는 전공 분야에서 중요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따라서 내 인생도 매우 풍요로워졌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여기 인천에서 나는 최근 여러 해 동안의 에스페란토 운동은 일본에서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더 성공적이라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익산에서 개최된 수준 높은 ISOA(ILEI 동아시아 세미나)를 경험하였고,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개최된 국제 선방에서 내용 풍부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우정 어린 정서를 느끼면서, 마음씨 좋은 한국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맛있는 양념의 동아시아 음식을 맛보면서 그리고 유명한 불교 사원을 산책하면서 이 아름다운 나라의 방문을 한 번으로 그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문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좋은 경험들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헝가리 에스페란티스토 사회의 삶도 풍부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한 후 많은 유럽의 기관들(도서관, 대학, 에스페란토

동아리들)이 나의 한국 경험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곤 한다. 그렇게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알아 가면서 많은 유럽인은 한국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고, 때론 한국 음식을 배우려 하고, 한국의 체조를 즐기기도 한다. 부다페스트에서는 국제 선방에 대한 강의를 한 후 모든 참석자들이 원불교의 108배를 함께 해보기도 했다.

요즘 몇몇 기자들은 에스페란토가 100년을 넘기면서도 진정한 세계어가 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페란토가 아직은 진정한 세계어가 아니지만, 세계 에스페란토 운동은 이미 존재하고 많은 나라에서 매우 잘 번창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에스페란토는 미래의 언젠가는 진정한 세계적 규모의 공통어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100년 이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실현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역사와 같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조했을 초기에 교도는 단지 몇 백 명뿐이었다. 그 후 백년이 지난 후에도 기독교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4세기 초 상황은 많이 변했다.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노라 선언하였고, 후에 공식적으로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서양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면서, 현재 인류의 삼분의 일이 여러 기독교 종단에 속해있다. 21세기 현재에는 거의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

자, 미래에 언젠가는 중립성과 쉽고 논리적인 문법 때문에, 에스페란토가 국제어로 적합하다고 이해하기를 우리는 희망하자. 그것이 먼 목표일 수 있으나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의 국제어 학습은 매우 유용하며 결실이 있다. 에스페란토 학습은 평생학습이지만, 이 학습이 언어를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에스페란토의 학습과 이용으로 우리는 좋은 국제관계를 이룰 수 있고 세계의 많은 친구와 사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고 풍요롭게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